

2015 새 설계

조충훈 순천시장

“국가정원 1호 브랜드 앞세워 정원산업 메카로 만들 것”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 가시화
- ▲2015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마련
- ▲순천부유성고 연자루 복원
- ▲상권활성화 구역내 경영 현대화 추진
-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사업 추진
-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시설 준비
- ▲‘9988원터’와 ‘행복동’ 확대
- ▲연향 3지구 종합복지센터 건립 운영
- ▲순천명품 농산물(오이·조기해썬·미나리) 브랜드화
- ▲원도심 하수관로 합류식으로 정비
- ▲국민체육센터 건립(2016년 12월 완공)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희소식을 접했다. 순천시민의 염원인 순천만 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화된 것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신년 포부를 밝혔다. 시는 올해 정원박람회 성공 효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해서 ‘시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에는 ‘순천만 정원=대한민국 국가정원 제1호’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올해 정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순천이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영구 개장한 순천만정원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립미술관 유치 본격 추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공공지원 확보를 통해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돼 관리 운영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각종 정원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의 명확화로 정원산업 활성화 및 정원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후속사업 등을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게 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계정원 리모델링과 정원지원센터 건립 등 기반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정원문화 프로그램 육성, 순천만 국제 정원 페스티벌 개최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순천이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발상지로 조경과 화훼 등 정원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이고 순천만정원의 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시장은 “국가정원이라는 최고의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외 홍보마케팅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선도도시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순천시의 또 다른 화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이다.

시는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구체적 실천 목표로 정하고, ‘돌아오는 순천, 머무르는 순천, 함께하는 순천, 꿈이 있는 순천’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거나 취업 준비생으로만 남지 않도록 대학과 기업, 행정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

또 에너지, 신소재 등 도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미래 세대를 위해 물, 숲, 공기, 에너지, 하천, 토양 등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생태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상수도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원도심 하수 관로중 60km를 올해 안에 분류식으로 전환한다. 또 생활폐수와 빗물이 따로 흐르게 만들어 동천과 해룡천, 순천만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15년을 ‘에너지 전환 도시 원년’으로 선정했다.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과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 도로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녹색 에너지에 의한 교통환경도 마련한다.

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편다.

시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과 직업재활,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시설도 올해부터 준비하여 2016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순천형 창조복지 모델인 ‘9988 원터’와 ‘행복동 사업’은 단계적으로 늘려 복지순천을 실현해 나간다.

인근 시와 협력해 광역 시내버스를 도입하고 농촌에는 마중버스, 마중택시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순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도립미술관도 적극 유치해 순천시민과 전파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순천=김은종·박선천기자 ejkim@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작

6개분야 162명 참여

순천시가 2015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9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6명 ▲순천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3명 ▲순천 선혜학교 특화형일자리 19명 ▲지체장애인협회 주차계도 활동 10명 등 6개 분야 162명이 참여한다.

순천시는 지난 2일 순천시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발대식을 가졌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선발된 24명은 직장인의 자세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와 예방법, 도우미 역할 등 기본교육을 받고 시 산하 부서에 배치됐다. 이들은 행정업무 보조와 민원 안내, 도서관리 등 장애 유형별, 배치 부서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주5일 근무를 하게 된다.

나머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도 1월중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千鶴’ 품은 순천만서 흑두루미 탐조

체험 특별 프로그램 운영

매주 토·일요일 4회 실시

순천시가 최근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는 두루미류가 1000마리 도래함에 따라 순천만 천문대와 탐조대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3월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하루 2회씩 진행되는 ‘흑두루미 탐조체험’ 프로그램을 개인 및 가족단위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순천만 자연생태관 데스크에서 현장접수하며, 참가인원은 1회당 20명이다.

1코스(오전 10시)는 자연생태관~람사르길~소리체험관까지 1시간 코스로 진행되며, 2코스(오후 2시)는 자연생태관에서 람사르길, 겨울철 일반

탐방객들에게 출입이 차단된 탐조대까지 2시간 코스로 진행된다.

순천만보전과 이기정 과장은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지난 1일부터 순천만 입장료가 인상됨에 따라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탐방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했다”면서 “순천만천문대에서 진행되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품은 천마리 종이학 접기’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만을 찾아와 겨울을 나는 철새서식지 보전의 중요성과 자연과의 공생을 배우는 ‘흑두루미 새벽탐조 프로그램’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문의(061)749-6082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대 학교기업 그린축산, ‘순천만 데어리’로 개명

순천대학교 학교기업인 순천대 그린축산(기업장 배인휴 교수·순천대 동물자원과학과)이 사명을 ‘순천만 데어리’(Suncheon-Bay Dairy)로 개명했다.

‘순천만 데어리’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이후 2012년부터 교육부 지원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낙농가들의 목장 유가공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낙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10월에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평화원(KIAT)이 전국 185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한 학교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선별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배인휴 기업장은 “순천만 데어리는 순천대 홍보와 함께 관련 전공 실습생 학생들의 실습 및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예비 기업 활동 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최근 전남낙농농



‘순천만데어리’의 ‘아침나루 요구르트’

협, 동원데어리푸드, 전북대 학교기업 전북대협, 임실치즈농협, 순천시, (주)아이배넷 영양과학연구소 등과의 MOU 등으로 국내 유가공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데어리’의 ‘아침나루 요구르트’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공식 상품으로 선정돼 판매된 바 있으며 위생관리 시스템 및 시설요건을 인정받아 축산물 위생안전 기준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현대여성아동병원·하나병원

보건부 지정 전문병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순천 하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의 2015년 제2기 전문병원 지정 평가 결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임산부 산전관리부터 출산이후에도 엄마와 아기가 같은 공간에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산기 질환(고위험산모, 미숙아) 지정병원이며, 순천하나병원 지정분야는 관절 전문병원이다.

제2기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달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으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등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복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흥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진월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 062 227-9600

신문구독 _ 062 220-0551

예향구독 _ 062 220-0550